



곡성 문화

2021년 (단기4354년) 12월 31일(금) / 제16호

발행인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곡성문화원 기획실장 배숙영
(우)5753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곡성문화원 사무국)
<http://www.gs-culture.or.kr> Tel. 061-362-0890

자연 속의 가족 마을 곡성

통명산 동악산과 봉두산 설산은 충효와 의절의 터
골작골작 솔숲향기 햇님달님 속삭이며 꿈꾸는 희망의 고향
산토끼 다람쥐 고라니랑 장미천사 진달래꽃 어우러져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자연 속의 가족 마을 곡성

섬진강 순자강과 보성강 대황강은 자연생태 천혜의 낙원
비단물결 침실습지 물안개 풀꽃사랑 피어나는 축복의 고향
참게 은어 잣자리떼 수달 삼 남생이랑 나누고 즐기면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자연 속의 가족 마을 곡성

곡성찬가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모두가 행복한 평생행복도시 곡성 실현



곡성군수 유근기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고, 아낌없이 열정을 다했으며, 손해없이 희망을 나눴습니다. 곡성교육은 전국적인 표준이 됐고, 마을공동체 문화도 살아나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서 전국 상위 20%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우리 군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1% 특별한 곡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곡성군 고유의 가치를 찾아 경쟁력을 길러야겠습니다. 민선 7기는 인구활력계획과 지방소멸기금사업 발굴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평생행복도시 곡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곡성형 학습공동체를 완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꿈키움마루에서 창의융합형 프로그램과 곡성형 진로진학시스템 개발, 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숲 생태교육, 연극캠프, 관현악단 등 곡성유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권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펼쳐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곡성읍권은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테이션 1928, 비빌 언덕25, 문화누리도서관, 공공주택사업, 오곡면사무소 행정·복지·문화 복합 공유공간 조성, 6070 낭만거리,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와 볼거리를 더하겠습니다.

옥곡권역은 미래 전략 산업의 요충지로 육성하겠습니다. KTC 고압전선 국제사호인정평가 기반 구축, 에너지연관기업 유치, 온곡특화농단지, 전남과학대학교 협업연계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스마트시티, 아롬드리나농센터 등, 일차리와 교육, 문화교류 복합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석곡권은 농촌의 삶을 즐기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와 오도이촌(五都二村)의 거점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대황강 출렁다리와 인성원 주변 모험시설, 숲놀이터와 이색 숙박시설, 강변마을 재생사업, 돌실어울림센터, 생활SOC사업 등으로 에코여행자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셋째, 고차 산업화와 고급 기술화 투트랙 전략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중합가공센터 곡성토란과 곡성멜론의 가공식품 개발, 곡성체리와 블루베리 단지와 상품종벼, 우량 딸기 육종 등 6차산업화로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넷째, 삶에 희망을 주는 맞춤형 평생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서비스 확대를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지원프로그램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65세 이상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편의시설 반드시 체육센터와 읍·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세어하우스 확대를 청년들의 행복한 곡성살이를 돕겠습니다.

다섯째, 연 300만명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기차플랫폼 다목적광장 조성, 장미공원 확장, 섬진강동화정원, 미디어존, 증기기관차 확충 등으로 기차마을과 곡성읍, 압록권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성강변 관광 거점화사업을 추진하여 여행객들의 발길이 섬진강에서 보성강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박해 진원지 평화순례길과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역사문화관 조성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자연친화적 활용으로 곡성의 미래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제철·월봉습지 생태탐방로, 꼬마잠자리 생태공원, 동악산 생태축·섬진강 침실습지 복원사업 등 생태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반구정 습지와 석곡면 시가지 스마트그린 도시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축사시설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사람들 먼저 생각하는 감동행정, 모두를 웃음 짓게 하는 행복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온라인마케팅 비용지원, '스마트공장지원 80% 추가, 심청상품권 할인 및 가맹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법' 지역경제 활성화, 섬진강 주변마을 재난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공공하수처리장, 코레일 곡성인재개발원 완공, 남해CC 조성사업은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은 의회상 구현



곡성군의회 의장 정인군

설렘과 기대 속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감염병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동참해주시고 이웃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주신 군민과 방역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지난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새로운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의원들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총원,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도 시행되어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곡성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정도로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22년에는 군민 여러분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을 더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의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7명의 의원은 군민들 삶의 현장을 수시로 찾아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둘째, 의원 역량을 강화하여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은 의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신고 가는 수레의 양비루라고 생각합니다. 수레가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려면 양비루가 균형을 유지하고 함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군민행복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에서 군민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곡성 특유의 문화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원천



곡성문화원장 고헌원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세시대 건강·행복·장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곡성이 가진 곡성 특유의 문화를 만나 곡성만의 색깔로 코로나도 이기고, 경제를 살려 모두가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봅시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

오산·겸면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는 효의 열이 살아 숨 쉬는 심청전의 원형이요, 심청고를 곡성의 서강이 열리는 호행길입니다.

옥곡·임면 실산자락 섬진강 합강길과 동악산 청계동 청류계곡의 병길은 임진왜란 호남의병연합군의 주역이요, 최초 의병장 유평로 장군과 양대박 장군의 길입니다.

곡성읍·고달에서 오곡 압록까지 흐르는 곡성의 섬진강 순자강 들레길은 조선의 개국공신 마천목 장군의 길이고, 통명산하 삼가·목사동·석곡·죽곡에서 압록까지 흐르는 곡성의 보성강 대항강 비단길은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 장군의 길입니다.

고향은 사람을 놓고 사람은 고향을 빛내는 것같이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곡성 특유의 문화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원천이요, 그 어떤 강한 힘보다 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곡성 특유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최첨단 관광시장을 개척하여 '섬진강기차마을·심청곡성 관광활성화'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대전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이 만나 소통하는 곡성 제1 고향 통명산에 올라 '의절의 터 곡성'의 정기를 이어받아 소통과 협력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군민행복지수 1위의 노래가 동네마다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곡성 특유의 문화유산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 3면이 바다!
곡성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어우러진 3면이 강 천혜의 낙원!



동과 북은 섬진강, 남에는 보성강이 흐르는 천혜의 낙원 곡성

곡성군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긴 강(218.6Km) 섬진강을 경계로 동북부에 전북 순창군과 남 원시에 접해 있고, 동으로는 구례군과 접해 있다. 남으로는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을 경계로 순천시와 접해 있어, 동·남·북 3면이 굽이굽이 비단물결 아름다운 강으로 어우러진 천혜의 낙원이다. 우리 군 남쪽에 이르는 보성강 물줄기는 압록에서 섬진강과 합류해 구례 하동까지 흘러 너른 바다로 흐르는 품속으로 들어간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압록유원지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섬진강 기차마을 천사장미공원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섬진강 돌래길은 마천목 장군길



대황강 비단길은 신승겸 장군길

섬진강과 보성강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관광자원화해서 폐철로를 활용한 멋진 추억과 낭만의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가 철따라 달리고, 여름이면 래프팅과 카누의 물결도 아름답다. 곡성의 섬진강(순자강) 돌래길은 고려 개국공신 마천목 장군길이고, 보성강(대황강) 비단길은 신승겸 장군길이다.

섬진강 기차마을 천사장미공원에서 열리는 심청축제, 세계 장미축제 막이 오르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곡성 특유의 맛과 멋에 취하고 볼거리에 흠뻑 빠져 나누며 즐기는 흥겨운 곡성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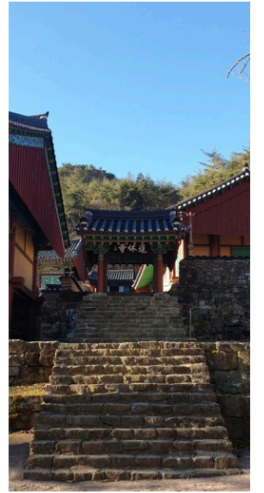
태고의 사찰과 역사 유적



곡성 제1 고봉 통명산 장군산



곡성의 진산 동악산 형제봉



원효대사가 창건한 도림사

곡성의 제1 고봉 통명산(通明山, 765m) 장군산은 옥황상제가 기거한다는 '창경궁 통명전'을 뜻하는 산이다. 통명산은 '자연미인(自然美人)' 같아서 지나가는 비도 산세의 아름다운 비경에 반해 하룻밤을 머물러 간다 해서 통명숙우(通明宿雨)라 칭송하고 있다. 통명(通明)의 이름이 지닌 의미와 같이 '해와 달이 만나서 통명산 마당바위에 앉아 소동하면 만사통한다'는 '만남과 소통의 산'이다. 신라 말기 풍수지리의 대가 선승 도선국사(道詵國師)와 '풍수 비결서'에 통명산은 호남 5대 혈(穴)의 하나이며 '장군대좌(將軍大坐)'의 한 혈(穴)이 있다고 한다.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과 조선의 개국공신 마천목 장군의 자취와 얼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곡성의 진산 동악산(動樂山, 735m)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660년) 원효대사가 화엄사에서 이주해 건립했다. 창건 당시 풍악의 음률이 온 산을 울렸다 하여 동악산이라 했고, 도선국사·서산대사·사명대사 등 명승들이 숲같이 몰려들어 그 이름을 도림사(道林寺)라 하였다. 도림사 산문 골짜기는 널따랗고 평평한 반석 위로 맑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흐르는 청류계곡 요요대(清流溪谷 樂樂臺)와 기암괴석 수석(水石)의 비경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형제봉(655m)은 형제우애(兄弟友愛)의 상징이요, 삼남에서 으뜸이다. 청류(清流)에는 원효대사의 구도정신과 선비정신,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정신, 명분과 절의를 지키며 인신 좋고 순후한 '의절'의 고장 곡성의 정기(精氣)가 솟아 오른다.



봉두산 천년고찰 구산선문 태안사



곡성 태안사 경찰총합탑



곡성 압록 경찰총합탑

봉황의 우두머리 봉두산(鳳頭山, 753m) 태안사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에 신성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동리산문의 본산지이다. 해철선사와 도선국사가 득도한 수도 도량으로 선암사·송광사·화엄사·쌍계사를 거느리며 영화를 누렸던 천년 고찰 대사찰이다. 장절공 신승겸 장군이 대구 공산전투에서 왕건 태조를 구하고 장렬히 위망대사 하심에 이를 지켜본 용마가 견훤이 버린 두 상임을 확인하고 장군등(비봉귀소혈)에 안장하였다는 '장군단'이 산기슭에 있다.

6.25동란 때 한정일 곡성경찰서장 이하 300여 명의 곡성 경찰이 구국단충(救國丹忠)으로 조국에 바칠 것을 결의, 압록고 부근에서 장렬한 전투 끝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48위의 처절한 희생을 낸 호국영령들의 한 맺힌 넋을 위무(慰撫)하고 기리는 태안사 경찰총합탑과 압록 경찰총합탑이 있는 곳이다.



옥과(玉果) 설산(雪山)

옥과(玉果) 설산(雪山, 553m)은 신비로운 기암괴석이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설산이라 부르고, 계곡으로 빠져드는 비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설산낙조라 칭한다. 옥과 합강리 출신 월파 유평로 장군이 1666자의 성을 축성하고 담양 금성산성(金城山城)과 연계하여 의병을 훈련시켰던 곳이다. 괘일산 중턱에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유시(諭示)와 고결문(告決文)을 남기고 스스로 배를 찢어 순절한 송강 정철의 8대손 소속 정재건 선생의 묘소가 있다. 근현대 고승 중 한 분인 청하스님의 법맥을 계승하고자 세워진 성륜사와 야산 조방원 미술관이 있다.



심청의 효가 살아 숨 쉬는 곡성



국내유일 관음사 어림관음상

효녀 '심청'의 본류인 관음사 연기설화와 곡나(谷那)의 철산, 심청이야기는 심청고를 곡성이 효의 고향임을 말해준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조선 영조 5년(1729년) 옥과현(現, 곡성군 옥곡면) 관음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가 보관되어있다. 이는 '원홍장'과 관련된 '관음사연기설화'이다.

일본서기(BC 252년) 신공황후 52년, 칠지도에는 곡성(谷城)의 옛 지명 곡나의 철산이 언급된다. 2000년 4월 KBS 1TV의 역사스페셜 '역사추적! 심청의 바닷길'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1700년 만에 심청은 곡성에서 다시 태어났다. 서기 300년대 철의 주산지였던 섬진강변의 처녀가 뱃길을 타고 무역항로를 따라 중국 양자강 어귀 관음불고 성지인 보타도(普陀島)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하면서 원홍장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밝혔다. 곡성군은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문화인 심청의 효심을 본받아 효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곡성이 심청의 고향임을 표방하고 심청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심청이야기 마을

곡성을 빛낸 자랑스러운 선조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壯節公) 신승겸(申崇謙) 장군

▶ 평산신씨 시조, 팔공산 전투 태조왕 구출 공신, 시호 장절(壯節)



신승겸 장군상



덕양서원

장절공 신승겸 장군은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에서 태어났으며,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이다. 어릴 적 비례산 신유봉과 동리산 태안사를 오가며 학문과 무예를 익혀 나말여초 궁예가 건국한 태봉국(후고구려)의 기병 대장군이 되었다. 918년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하여 고려 개국공신이 되었다. 927년 후백제 견훤과 태조 왕건 사이에 벌어졌던 대구 공산전투에서, 왕건 태조가 후백제 견훤 군대에 포위당해 사경에 처하자 왕건 태조의 갑옷으로 변장하여 어기를 타고 장렬히 싸우다 태조를 구출하고 왕을 대신해 전사(戰死)했다. 왕건은 위왕대사(爲王代死)한 장군에게 '장절(壯節)'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태조는 후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져 936년 통일의 대업을 달성했으며, 고려 500년의 왕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곡성에는 공의 성장무대가 된 용산단, 배향지인 덕양서원, 두상을 매장한 장군단, 용마를 매어 뒀던 계마사 등 10여 곳에 유적과 유물이 현존하고 있다.

조선 개국공신 충정공(忠靖公) 마천목(馬天牧) 장군

▶ 좌명공신 녹권, 전라도병마도절제사, 장흥부원군, 영의정 추증



마천목 장군 사당



마천목 장군 유평



마천목 장군 묘지

마천목은 1358년 공민왕 7년 장흥 회령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외가인 곡성 오곡면(현 오곡면) 당산마을로 이사 와서 청소년 시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조선 초기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받들어 난을 평정한 최고의 무장이다. 태종의 즉위에서 세종으로 권력 이양까지 공이 큰 개국공신이요 충신이다. 좌명공신(佐命功臣) 녹권과 교서, 곡성현 석곡 일대의 전답 30결을 봉록(俸祿)으로 받았다. 1412년 전라도병마도절제사를 자청하여 고향으로 내려와 곡성에 계신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며 효성심이 지극했다. 나주목판사, 병조판서,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429년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국구(國舅)나 정1품 친공신(親功臣)에게 준 작호(爵號)인 장흥부원군(府院君)에 임명되었다. 관직을 맡고 있던 시절에도 끊임없이 곡성을 찾았으며, 말년을 곡성에서 보내다가 곡성 땅에 묻힌 곡성의 인물이다.

월파(月坡) 유팽로(柳彭老) 장군

▶ 임진왜란 호남연합의병의 주역, 최초의 의병장!



유팽로 장군 출생지 합강마을 벽화



의마총

유팽로(柳彭老) 의병장은 1554년 곡성군 옥곡면 합강리에서 출생했다. 1579년(선조 12) 사마시에 합격하고, 1588년(선조 21)에 식년문과의 을과에 합격하여 홍문관(弘文館) 정자(正字:正九品) 벼슬에 올랐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초의 의병장이 된 유팽로는 고경명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좌부장 유팽로, 우부장 양대박, 종사관 안영 등을 주축으로 6천여 명의 호남연합의병군을 창설했다. 한양으로 진격하던 중 호남지역으로 진출해 온 왜군과 금산성에서 치열한 혈전을 거듭했다. 고경명 장군이 적진에 있음을 알고 그를 구하고자 다시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향년 39세의 나이로 순절하였다. 호남연합의병군의 금산전투는 왜군의 전주 침입을 저지하여 전라도를 보존하고 호남을 지켜 이순신의 수군이 활동할 수 있는 해양우세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 - 이순신 장군의 친필편지)

정해박해 진원지 곡성 성당



곡성성당



곡성현 웅기 교우촌인 덕실마을에서 시작된 정해년 박해는 1827년 음력 2월부터 5월까지 3~4개월 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전 지역으로 여파가 미치면서 240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체포되어 관아에 감금되었다. 경상도의 상주와 충청도 단양, 한양까지 확산되어 전국 곳곳의 교우촌이 관군들에게 감수 당하여 500여 명의 신도들이 체포되었다. 끝까지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사수하다가 숙청, 처형, 참수, 옥사 등 온갖 고초를 당하며 순교한 이들이 16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정해박해 진원지는 곡성군 오곡면 덕실마을을 웅기교우촌이요, 곡성성당이다. 순교의 현장이요 성지의 땅인 이곳은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유적지이며 곡성군의 중요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곡성군 생존피해자 구술생애사 - 곡성문화원 학술총서 2021년 5월 발행

우리 조국의 아픔을 담아

구한말 조선은 주변 제국주의 강대국가들의 탐바구니에서 엄청난 침략의 마수에 휘둘러야만 했습니다. 조선 고종(1875년) 때, 일본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해협까지 불법침입하여 한-일간의 충격전이 오고 간 충돌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듬해(1876년) 일본은 오히려 운양호의 피해보상과 함께 수교를 강요하며 다시 강화도에 무력 입선해 한-일간의 불평등한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굴욕적인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개방이후 한일합병(1910년)에서 8·15광복(1945년)까지 35년간 일제강점기의 철저한 민족말살 수단 식민지 통치정책으로 뼈아픈 수난과 시련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중일전쟁(1937년) 이후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 시작한 동원정책은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강제동원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우리 민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박박하였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군수물자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앞세워 군인, 노무, 군속,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으로 우리민족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약탈하는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의 전쟁터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조선인 군인들과 군속자들, 국내 각지의 탄광과 철공사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폭력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수많은 노동자들...

일본의 만행에 의하여 우리 고장 곡성군민 또한 예외 없이 수많은 물질 피해와 함께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끔찍한 만행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곡성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 분의 구술생애사를 우리 조국의 아픔을 담아 곡성문화원 학술총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지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역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구술과 함께 본 학술서적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간사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죄(謝罪)는 국가 의무이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수많은 악행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수탈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군인(軍人)동원, 군속(軍屬)동원, 노무(勞務)동원, 성(性)동원 등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압적인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전쟁터와 일본군위안소 그리고 국내·외 노역장 등에 강제로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만행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정과 사과문이 담긴 "고노담화"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면서 그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 하고 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피해배상 및 진심이 담긴 반성과 사죄(謝罪)는 강제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 전쟁범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서도 기록되었듯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상은 일부 국외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등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없고 있다. 특히, 국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강제동원피해자와 위로금을 받지 못한 국외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족수난(民族受難)의 35년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사실 등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과 시선이 다소 안일하고 소홀하다고 느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초등학교 교육부터 일본의 전쟁범죄, 강제동원, 과거청산에 따른 배상과 사죄 등 일제강점기 역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무리 안타깝고 슬픈 역사도 조사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강물처럼 흔적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곡성군의 "오경섭", "김경남", "홍희조" 세 분과 같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인생행적(人生行蹟)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역사에 바르게 기록되어 후세(後世)에 길이 전승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서문 : 곡성문화원 사무국장 조준원(편저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곡성군 생존피해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 -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버리·김성배·함민균 2021.11.17.

1.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곡성문화원장 고광운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7년 동안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실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조사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이래 1945년 광복을 맞이까지 35년간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식민 통치를 하였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고 물자를 약탈해 갔습니다. 특히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금속광산이나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군수공장, 토목 공사 현장으로 보내져 혹독한 강제노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동원'이란 미명하에 초등학생까지 군사시설공사에 동원했는가 하면, 중·고등학생은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갔고, 1944년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하여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고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 등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일본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0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약 8년간 국내외 강제동원에 대한 모든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만여 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 (지원책)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2,792건의 위로금과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자에게 지원하는 위로금을 비롯, 미수금과 의료지원금은 불과 77,780건, 약 6,334억 원 정도 지급했을 뿐입니다.

4. (보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그 진척 상황은 어떠한가요? 더불어 어떤 지원들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망 및 행방불명자 1명당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상자에게는 장해 정도에 따라 1명당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서 생존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매년 80만원 정액으로 지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상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 한정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2만 3,000여 명은 위로금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쟁터와 노역장 등에서 부상과 장애를 당한 후 귀국하여 고향 등지에서 사망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5. (용어) 강제동원, 강제징용? 정확히 어떤 명칭이 맞고 왜 이러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나요?

강제동원은 식민정책과 큰 가뭄(특히 1939년에는 쌀 생산량이 1천만 석이나 줄었습니다) 등으로 경제 파탄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선전을 하고, 관·경찰·면직원의 위압적 '권유'와 천황의 전사가 되면 민족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선전한 '황민화' 정책 등이 어우러져 강행된 것이지요. 온갖 강요 속에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조선인에게 강제성과 폭력성이 수반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강제징용은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강제적으로 집합시켜 착취하는 징병과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종사하게 한 일을 말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일제의 노동력 강제동원이란 점에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6. (노력)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연로하신 상황에서, 하루빨리 확실한 일본 정부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 764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로금을 받지 못한 국외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매듭지어야 할 공동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이와 같은 일제 만행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정과 사과문이 담긴 "고노담화"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면서 도리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등, 그들의 전쟁범죄를 왜곡하고 정당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진심이 담긴 반성과 사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인터뷰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제22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수상작

글짓기부문 수상자 명단

구분	성명	학교
대상	이지혜	군포 신기초등학교
금상	이강훈	충주 대소원초등학교
은상	황수미	대전 보성초등학교
은상	구예슬	광주 매곡초등학교
동상	이관영 외 7명	
장려상	임경은 외 56명	

그림부문 수상자 명단

구분	성명	학교
대상	오수연	서울 공덕초등학교
금상	정유나	부산 과정초등학교
금상	박채연	광주 송원초등학교
은상	이우재	광명 안서초등학교
은상	한다운	천안 월봉초등학교
동상	엄이주 외 30명	
장려상	송성원 외 239명	

유치부 수상자 명단

구분	성명
대상	봉우준
금상	임설아 외 9명
은상	김지은 외 9명
동상	김서진 외 3명
장려상	진하윤 외 185명

그림부문 대상 서울 공덕초등학교 오수연



유치부 대상 익산 비사벌 유치원 봉우준



글짓기부문 대상 군포 신기초등학교 이지혜

효녀가 되는 멋진 방법

군포신기초등학교 이지혜

효도 '孝'자는 아들이 부모를 등에 업은 모습이거나 노인이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라고 한다. 효도를 하거나 부모를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멋진 한자이다.

어느 한 마을에 효성이 깊은 아들 둘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 큰아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고 작은아들은 형편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큰아들의 충직한 호강에도 불구하고 늘 작은아들 집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께 그 이유를 여쭙어 보았다. 그 물음에 어머니는 대답해 주었다. "물론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좋지. 하지만 네 동생집엔 더 좋은 것이 있단다. 바로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내방으로 와서 이 늙은 어미의 손과 다리를 주물러 주며 말동무가 되어주거든"

이 이야기를 읽고 나는 아빠가 떠올랐다.

우리집에도 3개월에 한번씩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효녀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처럼 아빠에게도 앓을 못보는 두부모님이 계신다.

할머니께서는 병으로 시력을 잃으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때 폭탄파편이 눈에 들어가 눈이 안보이게 되셨다고 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눈이 잘 안보이셔서 아빠는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신다.

할머니께서는 아빠가 다정해서 좋다고 하신다. 아빠께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잘 주무셨는지 항상 물어보셔서 아빠가 다정하다고 하시는 것 같다.

나는 옛날이야기 중 '효녀심청전'을 가장 좋아한다. 심청이가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짓동냥으로 심청이를 예쁘게 키워주신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몸이 불편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정성껏 6남매를 키워주셨다고 한다. 나는 건강하지만 열심히 하는게 어려운데 몸이 불편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효도는 부모님이 정성껏 키워주신 것을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효녀가 되는 멋진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제일 큰 효도라고 엄마가 말씀하시니 몸도, 마음도 튼튼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운동도하고, 바른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두 번째, 효도는 부모님께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을 낳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놀러오셨을 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세 번째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다정하게 안마해드리기.

네 번째,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 써드리기.

다섯 번째,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전하기.

효녀가 되는 멋진 방법을 지키면서 나는 오늘도 자라날 것이다.





제6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 공모

1. 추천부분

구분	성명	추천대상
효행부문	각 부문별 1명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며 우리 민족 전통의 "효"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부문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부문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며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교육부문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곡성 교육 발전에 앞장서며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2. 시상내용

- 각 부문별 선정된 분에게는 상장과 상패 수여

곡성문화원에서 곡성군 경로효친의 실천과 문화예술교육에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6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은 효행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등 4개 분야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곡성군민 또는 곡성을 연고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및 개인입니다.

3. 추천서 접수 및 선정

가. 후보자 추천자격

- 각 부문 : 곡성군민 또는 곡성을 연고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및 개인

나. 접수기간 : 연중상시

다. 접수처 : 곡성문화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곡성문화센터 3층)

전화 (061)362-0890 / 팩스 (061)363-7300

이메일 gs0890@kccf.or.kr

4. 제출서류

가. 추천서, 공적조서 및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추천서는 곡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s-culture.or.kr>)

주요사업-곡성 효 문화상 (4. 제출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발표

가. 곡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s-culture.or.kr>)

발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곡성문화원
Gokseong Cultural Center

문화재청 2022 학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과거(過去)로 가서 과거(科擧)보자!!
찾아가는 **문화재VR** (이상현실)

VR

이 광고는 VR 기술을 사용하여 과거의 문화재를 가상 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이미지에는 VR 헤드셋을 착용한 사용자, VR 기기, 그리고 다양한 VR 콘텐츠의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 한복진흥센터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찾아가는 한복체험교실

국내 교육기관의 한복분야 전문 프로그램 다양화와 한복분야 전문 학술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의 기틀마련의 시작

주최: 한복진흥센터, 곡성군, 곡성문화원

이 광고는 한복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한복 체험 교실의 모습과 참가자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